

공감

행복한날외골소식지
vol.3 / 2018. 12.



달성토성마을을영원하라!

달성토성희망의별을발하

태국의 2000년 역사를 품다
토성마을

혼자가 아닌 같이!! 멀리 달려 나가기를 바라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변화해 가는 달성토성마을 모습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정성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합니다. 매일 새로운 설렘이 샘솟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33년을 살면서 지켜본 지난날의 마을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달성토성마을 주변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 서로 다른 생각이나 말들이 이제는 하나되어 화합하는 마을
 2.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참여하는 마을
 3. 주민 스스로 골목정원을 가꾸어 향기와 미소를 주는 마을
- 이 모든 일들이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겁니다.

또한 주민들의 뜻을 모아 만든 달성토성마을협동조합이 창립 1주년을 맞은 지금 이 순간은 부족함을 보완하고 다듬을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묵묵히 지켜봐 주신 조합원과 주민 여러분, 길잡이가 되어 주신 구청 관계자, 주민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달성토성마을 사람들은 사소한 일도 소중히 여기며 혼자가 아닌 같이, 멀리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달리는,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운 마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 12.

달성토성마을협동조합 이사장 김 옥 빈

남피골 2018 월별행사 A monthly event of Nalmoe-gol

3 March

마을해설사 교육
마을해설사 운영
바리스타교육(양성반, 심화반)



4 April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
주민참여마을학교 기초과정
골목정원관리사 양성교육
다육아트 교육(초급)
마을예술가 양성교육(한지공예)



5

May

골목정원관리사 양성교육
다육아트교육(초급), 수공예동아리(초급)
벽화동아리(초급), 리폼공작소(초급)
날뽕공연단 하모니카(초급)
마을예술가 양성교육(한지공예)



6

June

날뽕시네마
수공예동아리(초급), 벽화동아리(초급)
마을SNS기자단, 리폼공작소(초급)
마음어룸클래스(초급)
날뽕공연단 하모니카(초급)



9

September

수공예동아리(중급)
벽화동아리(중급)
마음어룸클래스(초급)
마을예술가 양성교육 한지공예(중급)
날뽕공연단 하모니카, 오카리나



10

October

달성토성문화거리
다육아트교육(중급), 벽화동아리(중급)
수공예동아리(중급)
마을부엌, 마을해설사 운영
날뽕공연단 하모니카, 오카리나



7

July

마음어룸클래스(초급)
날뽕시네마
마을예술가 양성교육(한지공예)
리폼공작소(중급)
마을해설사 운영



8

August

수공예동아리(중급)
마음어룸클래스(초급)
마을예술가 양성교육 한지공예(중급)
날뽕공연단 하모니카(중급)
마을갤러리, 리폼공작소(중급)



11

November

주민참여마을학교 심화과정
다육아트교육(중급)
수공예동아리(중급), 벽화동아리(중급)
날뽕시네마, 마을갤러리 운영
날뽕공연단 하모니카, 오카리나



12

December

다육아트교육(중급)
마을SNS기자단(소식지제작팀)
마음어룸클래스(중급)
날뽕시네마, 마을부엌 운영
날뽕공연단 오카리나, 하모니카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 Dalseongtoseong Village Alley Festival



봄바람이 골목골목을 누비며 꽃향기를 나르던 지난 4월 28일, 날외골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습니다. '달성토성마을 횡단보도춤마당', '달성토성둘레길 버스킹축제', '달벌성주 마을시찰 시연', '삼죽오, 달성토성을 날다', '달성토성둘레길농장'과 같은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과 먹거리, 체험, 전시 부스 등이 달성토성둘레길을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30분 단위로 골목정원투어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되었습니다. 비석치기, 망차기, 망줍기, 고무줄놀이, 국궁, 투호, 제기차기, 양반놀이, 떡메치기, 뽕튀기 등 즐길 거리가 넘쳐났습니다.

약 8,000명의 손님이 다녀갔습니다. 동네가 생기고 가장 많은 사람이 찾아온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1회 때부터 3년 연속으로 대구시장님이 축제장을 찾아 주셨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바빠도 달성토성마을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안 올 수가 없다."는 시장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마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에 다녀간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조용한 동네가 손님들로 북적거리고, 동네를 지키고 있는 주민들의 자긍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골목정원 투어 Tour of Alley garden



2018년 12월 6일, 서울시청 직원 및 연세대학교 교수님 11명이 달성토성마을에 방문했습니다. 엇그제만 해도 부끄러워서 '비산동에 산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다락방에 올라가기 전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울시청 직원 분들의 요청으로 엄석만 도시재생과장님의 피피티 강의를 있었습니다. 물레방아정원의 옛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이 사진을 보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수선했던 동네가 지금은 전국에서 제일 가는 마을로 바뀌었다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동네가 달성토성마을이라고 오시는 손님들마다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타 도시에 먼저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라니... 감탄에 또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물레방아정원에서 다시 한 번 박수까지 보내 주시면서 따뜻한 봄날 꼭 다시 찾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달성토성마을 파이팅!'을 외쳐 봅니다.

마지막까지 고생하여 주신 엄석만 과장님, 김현숙 주임님, 이용형 주임님, 신경남 해설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연



달성토성마을다락방

Dalseongtoseong Village Darakbang

달성토성마을다락방.
달성토성(달성공원) 서문에서 서문시장
방향으로 도보로 2-3분 정도 소요!

달성토성마을다락방에 오시면 3층에 북카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개소식과 함께 운영해 온 다락방카페는
4계절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차를 마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메뉴도 아주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임들 그룹별로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옆방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인기있는
어린이누리실이 있고, 북카페에는 여러 종류의
서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다락방 옆에 위치한 역사마당이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가끔씩 오시면 카페에 손님이 많아서 북적일
때가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달성토성마을 골목정원으로 투어
오신 분들이십니다.

저희 골목정원이 전국적으로 명성이
대단합니다.
저희 다락방카페는 달성토성마을 주민들의
골목정원과 영원히 함께 발전해 가길
바랍니다.

달성토성마을 골목정원 북카페 꼭 한 번 들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 황명순



다육아트 체험·판매

A fleshy plant Experience · Sale



누구나...
흙냄새를 맡으며 흙을 만지고 꽃을 가꾼다는 건 참으로 경이롭고 흥분되는것 같습니다.
골목정원이 시작되고 조금 지나서부터 다육이라는 작은 화분을 이용해서 다육아트로
꾸며 보고 만들어 보는 수업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다육이라는 뜻은 많을 다(多), 고기 육(肉)자를 씁니다.
자기 몸에 살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물을 줄 때에도 잎보다는 흙에다 주고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사는 식물입니다.

작은 작품부터 문살을 이용하는 작품이나 덧신을 화분으로 만들어 보는 작업도 해 보았습니다.
여름 나기가 힘들거나 관리 소홀로 죽어 버리는 다육식물도 많았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배우고 느끼면서 나 자신도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완벽하지 않아서 투박한 독배기처럼 울퉁불퉁하지만 나름대로의 멋과 향을 내면서
특별한 달성토성마을만의 색깔을 지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달성토성마을 협동조합 안의 하나의 상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골목정원에 투어 오신
분들이나 아이들 그리고 학교 동아리에서 많이 오셔서 체험을 합니다.

앞으로는 홍보도 많이 해서 마을을 알리는 데에 전도사 역할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역사와 생태가 살아 숨쉬는 달성토성마을이 나는 참 좋습니다. ♡ 신경남



달성토성마을 주차장

Dalseongtoseong Village Parking lot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마을이든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달성토성마을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좁고 긴 골목이 많다 보니 '내 집 앞 주차'는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숙원이었던 달성토성마을 주차장이 2017년 7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의 서문 인근, 화재로 인해 집이 전소되면서 그곳을 철거하여 3대 정도 주차할 수 공간이 생겼습니다. 내친 김에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2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좁은 골목, 공가와 폐가가 많은 마을의 특성상 주차장은 또 하나의 작은 싹을 품고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 같았습니다.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젊은이들의 자연스럽게 이사를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인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달성토성(공원)을 찾은 관광객들과 골목정원에 오시는 손님들도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서 주차장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47년 만에 달성토성의 웅벽이 허물어지고 서문이 생기면서 마을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달성토성마을 주차장은 처음에는 주민협의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다가 달성토성마을 협동조합이 구성되면서 2018년 6월 8일부터는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조합원들이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지금은 나름대로의 색깔을 지니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달성토성마을 협동조합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기대해 봅니다. 달성토성마을 화이팅! 이갑연

벽화동아리

Dalseongtoseong Village Mural Club

내 손으로 그려서 계속 눈이 가요~
달성토성마을 벽화동아리_달성토성공영주차장 연꽃 벽화편

2015년 여름, 주민 분들이 직접 물감, 붓을 사서 시작한 벽화동아리가 어느덧 4년차를 맞이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골목과 골목을 이어나가는 벽화를 그려나가고자 그 첫 번째로 '달성토성공영주차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5월 2일~7월 4일)에는 주차장 입구 옆 쉼터 공간을, 하반기(9월 15일~11월 17일)에는 달성토성공영주차장 안쪽 큰 벽면에 연꽃, 원앙, 나비 등 자연물과 더불어 달성토성마을의 캐릭터인 '토성이'와 소미다미 캐릭터인 '소미'도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처음엔 '큰 벽면을 어떻게 채워나갈까?'라는 고민이 있었지만 함께해 주시는 벽화동아리 주민 분들이 있어 즐겁게 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올해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날부터 찬바람 부는 가을까지 1년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동민

2018 달성토성마을 벽화동아리

나눔지기 : 권기주, 김다솜, 이동민

배움지기 : 권향인, 김연량, 김현규, 박옥순, 배민희, 소병순, 윤정희, 이진호, 이현아, 장수평, 정세희, 정영애, 진미정, 진향희, 최밀화, 최혜정





달성토성마을에 전국 유일 유리온실 다육아트전시장이 올 4월 28일 마을축제에 맞춰 오픈을 했어요. 저희 온실은 최첨단 시설로 온도 설정 하나로 창문이나 가림막도 자동으로 여닫을 수 있게 설정되어 일일이 여닫지 않아도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처음 온실을 지을 때만 해도 겨울에 화분 보관용으로 짓긴 했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온실을 비워 놓긴 아깝다는 생각에 끈작가님의 다육아트랑 동네 주민 분들이 손수 만든 다육아트를 전시하고 중간엔 커피나무랑 몽키바나나, 감귤나무, 부겐베리아를 심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직접 다육이를 판매하기도 한답니다.

지금은 우리 동네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한 온실은 투어 오시는 분들마다 너무 부러워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계속 문을 열어 놓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려 계속 열어 놓을 수 있게 동네 주민 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미정



공유부엌 '함성'

A shared kitchen 'Hamseong'

마을 주민이 함께 쓸 수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유부엌'이 있습니다. 특별한 반찬이나 간식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하고, 마을에게 소소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함께 음식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5인 이상이 함께 신청하면 서구 구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산2.3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053.663.3305

하모니카반

Hayonica class

비산2.3동 주민 여러분, 누구든지 하모니카 배우러 오세요. 달성토성마을다락방 2층입니다.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부산의 주민협의체 및 시청직원 분들이 함께 달성토성과 골목정원을 보러 왔을 때, 하모니카반에서 주민들이 손님 앞에서 숨씨를 발휘하여 연주를 했습니다. 김말주

날피시네마

Nalmoe Cinema

2018년 6~7월,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2일 동안 퍼팩토리극장에서 날피시네마가 진행되었습니다. 낮 시간에는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 저녁 시간에는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무료 관람이었으며, 다과도 제공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달성토성마을 홈페이지

Dalseongtoseong Village Homepage

네이버에서 '달성토성마을'을 검색하세요.



2018 달성토성문화거리.

2018년 10월 14일, 21일, 28일. 총 3일에 걸쳐 달성토성 서문 일대 150미터 구간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문화거리'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달성토성마을 골목정원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버스킹과 함께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특히, 문화거리 행사를 통해 달성공원 수문장이었던 '키다리 아저씨'를 재현하여, 달성공원 정문에서 고별을 기념하는 사진을 찍고, 풍물패와 함께 새벽시장을 돌며 판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달성토성 서문에 와서 새로이 취임을 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덕분에 휴일을 맞아 달성공원으로 놀러온 많은 관광객들이 서문을 통해 내려와 문화거리 행사에 참여하고, 골목정원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달성토성마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마을에서 꽃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달성토성문화거리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에필로그 epilogue



2,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달성토성은 대구시민에게 있어 마음의 고향이자 정신적 뿌리로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삼한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지나 근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대구를 지켜온 달성토성, 그 주변에는 항상 마을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별을 품은 마을과 사람들!

달성토성마을 사람들은 유래를 찾기 어려운, 아름다운 골목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화분을 골목으로 꺼내 놓으며 시작된 골목정원!
빛바랜 골목에 생기를 불어넣은 꽃향기는 우리 마을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문화를 꿈꾸는 전국의 수많은 마을과 단체들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전국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꽃에 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꽃보다 아름다운 달성토성마을입니다.

발행처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일

2018. 12. 14.

만든 사람들

권기주

김말주

김옥빈

서태숙

신경남

이갑연

이동민

이무찬

진미정

황명순

도움 주신 분들

비산2,3동 행정복지센터

달성토성마을협동조합

디자인

(주)지교 디자인솔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83길 21 2층 / 053.525.1058

<http://seoguorc.or.kr>